전산 실수…12만명 4시간 뙤약볕 내몰아

■ 우왕좌왕·불친절 조직위 불만 폭주

여러 기관 모여 손발 안 맞고 책임운영 안 돼

"박람회장 위치도 제대로 알지못해 우왕좌왕하고, 불친절한 조직위를 믿고 어떻게 국제 행사를 치른단 말입니까?"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으로 꾸려진 조직위가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아 운영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전산 실수로 지난 5일 박람회장을 찾은 11만5000여명의 관람객들이 길게는 4시간 이상 뙤약볕에서 기다리게 하고, 길을 잘 모르는 운전기사에게 순환버스 운행을 맡기는 등 국제 행사에 걸맞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관람객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5일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순환버스의 운전기사 중 일부가 노선을 잘 몰라 길을 잘못 들어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입장권 관리 서버가 오류를 일으켜 스마트폰 및 미디어 키오스크 예약이 전면 중단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전날 인터파크 전산 관계자가 사전발권 프로그램 작업을 하면서 DB 인덱싱 기능을 복구해 놓지않은 어이없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편을 겪으셨던 모든 분께 머리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직위가 밝힌 이날 실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예약 시스템 불통으로 아쿠아리움이나 대우조선해양로봇관 등 인기관은 대기열이 엄청나게 길어져 관람객들이 4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고,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또 조직위 직원,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리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이 부족해 길을 묻는 단순 문의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장권 구매와 관련한 콜센터가 불통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조직위는 수유 및 기저귀 교환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조직위의 사과에도 불구, 관람객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 네티즌은 조직위 사과와 관련, 댓글을 통해 "어린이날이었던 그날 세 아이를 데리고 경남 창원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10시에 도착했는데 시스템이 엉망이 돼 전시관은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그날 관람객은 실험 대상이었나?"며 꼬집었다.

이처럼 동네잔치만도 못한 실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있어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원소속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왔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면서 "자기 업무가 아니면 알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업무 이외의 문의 전화는 받지도 않는 게 일상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기념해 여수 신항에서는 11일부터 국제범선(돛단배)축제가 열린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이 축제에는 강진에서 만든 옹기를 실어나르던 옹기배와 조선시대 조운선 등 한국의 전통배를 비롯 크루저요트 등 모두 26척의 범선이 선보인다. 사진은 여수 신항에 입항한 러시아 극동해양대학 실습선 나제즈다호(2297t).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리 보는 전시관 ④ 산업기술관·해양도시관

인류가 처한 식량 부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는 해양산업기술관.

배 모양 … 물·식량 고갈 영상으로 보여줘

◇해양산업기술관

박람회 전시관 중 바다에 가장 가까이 세워졌고, 외관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모습이다. 육지에서 물과 식량이 고갈되는 심각한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보여준다.

관람석 주변에도 물방울과 실험용기 형태의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고 중앙에는 수증기 같은 물방울이 미세하게 뿌려지는 장비가 감춰져 있어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해조류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성장하는 기술을 실제로 보여준다. 해조류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이나 의약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등도 전시된다.

또 인류가 처한 식량 부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보여준다.

9세기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던 난파선 '다우'를 재현한 해양문명도시관.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난파선·항해술 … 인류 해양 개척사 한눈에

◇해양문명도시관

9세기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던 난파선 '다우'가 전시관 안에 재현돼 인류의 해양 개척사를 보여준다. 난파선 위를 거닐면서 고대인의 항해술을 엿보고, 1200년간 간직했던 당대 문물과 해양기술을 엿볼 수 있다.

계절풍을 따라 항해를 하던 해양인류의 지혜를 느끼고 밤이면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해 도구를 이용하는 고대인의 항해술, 난파선을 통해 알게 된 선체 결합법등 놀라운 해양기술에 감탄하게 한다.

또 과학관, 역사관, 미래관, 테마파크를 합쳐놓은 공간으로 학습적 효과뿐 아니라 흥미를 끄는 다양한 아이템이 즐비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다른 일엔 일체 신경 끊어야

벨루가 3마리 서로 싸워 격리

장거리 이동 스트레스 받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관람객의 사랑을 독차지 할 것으로 기대됐던 희귀 흰고래(벨루가) 3마리가 서로 다툼이 심해 아쿠아리움 수조에 입수시킨지 1주일 만인 지난 8일 격리됐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람회 조직위는 9일 "지난달 25일 여수로 온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남은 1마리를 공격해 분리·적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오빠 '빌리'(3살)와 언니 '지나'(2살)가 막내 '타냐'(1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벨루가 3마리(빌리, 지냐, 타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 1100㎞에 달하는 해로와 육로를 거쳐 박람회 아쿠아리움에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위는 개막(12일) 이후에도 다툼이 계속된다면 전시기간 동안 낮에만 잠깐 한 수조에 넣어둔 뒤 뒤 밤에는 다시 분리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벨루가는 성체가 4m 이상 자라 돌고래가 아닌 고래로 분류된다. 순백의 아름다운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친화적인 성격과 엔젤링(원형 물방울 고리) 묘기 등으로 이미 해외에서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중-359호

홧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아지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 : 상실하허(上熱下寒: 上實下虛)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열,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강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 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상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 형 원장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안내 • 홧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